LOCAL

Local Heritage

2년 뒤 철거 예정인, 여덟 계절의 유통기한을 가지게 된 낡고 오래된 건물에 윤현상재는 로컬을 전통공예, 헤리티지(Heritage)로 해석하며 각 지역의 헤리티지를 담은 라이프 스타일 숍을 기획한다. 현대의 숍(Shop)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소를 넘어 고객에게 브랜드가 추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 다양한 로컬을 배경으로 의식주의 재료를 큐레이션 한이번 전시에서 무형문화재와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공예의 가치가 전달되기를 바란다.

기획자 최주연

HERITAGE

전시기간

2023. 5. 26(금) - 6. 24(토)

전시장소

윤현상재 Stage 02(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2길 5 3층 302호)

참여작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_故노진남, 서신정 / 전승교육사_박영애 / 이수자_강성찬, 원경희, 이지호, 황덕성

[작가]

김경찬, 김영은, 김지민, 박경희, 신지은, 양요셉, 여인철, 이예지, 이정민, 진계숙, 황정화

[브랜드]

아우로이, 투빌더스하우스

공간

아파랏.체, Space B-E

기획

Space B-E



@spacebe_official



@younhyun_hands_store



@younhyun_official

2023.5.26-6.24

참여작가

국가무형문화재

故노진남 _ 나주의샛골나이 명예보유자 원경희 _ 나주의샛골나이 이수자

Noh Jinnam, Won Kyunghee

목화솜으로 만들어진 무명은 목화를 재배하고, 그 안에 씨를 빼내고, 솜을 부풀려 고치를 말고, 물레에 돌려 무명실을 만들어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나라 의생활의 주재료였던 무명은 부녀자들이 가족들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만들던 스토리가 숨겨져 있다. 故노진남 선생님이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또는 누군가의 아내로서 긴 생애를 지낸 삶이 녹아 있는 옷에 담긴 이야기. 누군가를 애정하는 마음이 담긴 무명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서신정 _ 채상장 보유자 Seo Sinjeong

다양한 색으로 염색된 대나무로 엮어진 상자인 채상은 1975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나무를 수십 번 쪼개어 종잇장처럼 얇게 떠낸 대오리를 끓는 솥에 넣어 염색하고 대올을 한 올 한 올 정성스레 문양을 집수하며 엮어가는 인고의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 이러한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제작한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박영애 _ 침선장 전승교육사 Park Youngae

국가무형문화재 침선장 전승교육사로 바느질로 옷과 장신구,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능장이다. 이번 전시 에서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 아이의 안녕과 평생의 행복, 건강을 기원하며 한 땀 한 땀 부모의 사랑 가득한 마음을 담아낸 전통 출산용품을 선보인다.

강성찬 _ 배첩장 이수자 Kang Sungchan

'뒷면에 옷을 입힌다'라는 의미의 배첩은 그림이나 글씨 등 서화의 뒷면에 종이를 덧붙여 두루마리·족자·병풍·책·첩 등의 다양한 형태로 꾸미는 일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배첩의 하나인 능화지와 *오침안정법을 이용해 만든 전통 공책을 소개한다.

*오침안정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제본법. 책의 등 쪽에 다섯개의 구명을 뚫고 무명실로 꿰 메는 제본

이지호 _ 유기장 이수자 Lee Jiho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만큼 현재의 쓰임에 주목하는 것 역시 전통공예의 현대적 계승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다양한 기물들을 방짜유기 기법을 통해 제작하고 있다.

황덕성 _ 화혜장 이수자 Hwang Ducksung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전통 신발에 반복된 작업 과정을 통해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변화를 준다. 변화를 가진 작품은 좀 더 오래된 소재와 과거의 제작 방식을 통해 그 시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작가

김경찬 Kim Gyeongchan

점토(비 화산회토)에 화산재가 침투되어 생성된 제주의 화산회토는 다른 지역 점토보다 철분 함량이 높아 특유의 색감과 통기성을 나타낸다. 제주만의 감성을 강조하며 소성 과정에서 다양한 질감과 색감을 표현하고, 제주 옹기의 형태를 재해석해 현대적 쓰임을 강조한 제주 옹기의 가치를 느끼길 바란다.

김영은 Kim Youngeun

'바대'란 홑옷 한복의 구성 요소로 옷감의 손상을 막기 위해 움직임이 많은 부분에 덧대는 천 조각이다. 작가는 이러한 바대의 개념을 직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기법으로 해석한다. '바대 가방'은 이 기법을 한국 직물에 적용하여 내구성을 실험한 결과물이다. 바대를 한 겹 한 겹 쌓아 올려 힘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덧대어 가방으로써의 가능성을 선보인다. 이 작품을 통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숨어 있는 전통의 아름다운 요소를 발견하고 소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김지민 x 투빌더스하우스

Kim Jimin x twobuildershouse

반복의 차이로 파란색을 나타낸다. 전통의 가치로 인해 때론 무겁게 느껴지는 파란색을 만드는 과정과 결과를 보다 친숙하고 가볍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하나의 옷을 만들더라도 정성을 들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브랜드 twobuildershouse 와 협업하여 전통적인 방법의 쪽 염색이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에도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컬렉션을 선보인다.

박경희 Park Gyeonghee

문양누비를 중심으로 통영누비와 전통공예를 계승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하던 12공방이 위치했으며 현시대에도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공예의 터인 통영에서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내려온 누비의 아름다움을 보며 성장하였고 그 누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 땀 한 땀 걸어가고 있다.

신지은 Shin Jieun

2004년부터 19년째 지승공예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의 시간으로 숙련된 기술을 통해 지승공예의 기본인 외을과 겹올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낸다. 문플레이트는 기술적 완성에 더해 조선시대의 우아하고 미니멀한 형태미, 그중에서도 달항아리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던 겹올을 바깥으로 빼내 모습을 드러냄으로 멋을 더했다.

양요셉 Yang Joseph

건축적인 구조와 산업적인 재료를 가구, 오브제 등의 입체 조형 형태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소로 구성된 양감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정제된 사물의 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독립적이면서도 때로는 주변과 호흡하며 가변적이고 구조적인 사물의 형태를 취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여인철 Yeo Inchul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의 건축을 기능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불편함이 없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요즘의 주거 공간과는 다르게 자연에 의존하고 순응하여 생활해야 하는 공간이었던 한옥은 모든 부분이 삶을 위한 건축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었다. 저마다 다른 지역적, 용도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한옥의 건축적 특징을 가구에 표현하여 작은 스케일의 한옥을 공간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한다.

이예지 Lee Yezi

나무의 무늬는 여느 생명체가 그렇듯 단 한줄도 같은 것이 없어 애틋하고 아름답다. 한국 전통 목가구는 이런 특징을 살려 나무가 가진 아름다운 결을 이용해 자연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든다. 한 나무에서 왔지만 톱날을 지나는 순간 왼쪽은 버려지는 것, 오른쪽은 가치 있는 물건이 된다. 색감이나 무늬, 벌레구멍이나 옹이, 변재 등의 이유로 제외된 조각들까지. 함을 만드느라 버려지는 '왼편'에 남겨진 나무의 살들을 모아 붙여 다시 함을 만든다.

이정민 Lee Chungmin

시 공간성을 중시한 오브제들을 통해 사물이 가진 온기와 여백으로 내적 미학을 표현한다. 시대를 넘어 시절의 기억을 심미적 정서로 소통하고자 하며, 고유한 수제 한지의 물성 위에 얹혀, 있는 그대로 재현이 아닌 또 다른 시공간으로 안내하고 무의식으로 출발한 시간은 멈추지 않고 아련한 기억 속으로 스며들게 한다. 실낱같은 빛의 짙고 옅음의 농담(濃淡)을 회화적으로 표현하여 위로의 선을 긋는다.

진계숙 Jin Gyesook

자연친화적인 천연 염색에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기존 천연 염색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독특한 아이디어를 더해 작가만의 특별한 작품을 만들면서 천연 염색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는 중이다. 린넨마와 같은 식물성 친환경 소재에 천연염료인 쪽으로 염색한 작업은 친환경적이며, 자연의 색을 고스란히 담아 색감이 독특하면서 편안함을 준다.

황정화 Hwang Jeonghwa

탈곡한 볏짚을 살뜰히 거두고 부지런히 가공하여 생활품을 창조했던 짚공예는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온 문화이자 삶의 방식이었다. 누구나 기술이 있었기에 모양새는 투박하지만 개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농촌의 축소와 산업화로 인해 그 명맥이 끊어진 짚공예의 전통을 이어나가며 식량과 기후라는 이중의 위기 시대에 자원의 순환과 실용의 가치를 전한다.

브랜드

아우로이 AUROI

아름다운 우리의 것을 아울러, 이롭게.

오랜 시간을 통해 숙련된 장인의 손끝에서 만들어 지는 공예품들을 전통에서 기인한 기술, 소재, 형상, 그리고 문양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 맞게 재해석하여 소개한다.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전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쉽고, 편안하게 사용될 수 있길바란다.

공간

아파랏.체 apparat-c

한지와 낚싯줄, 쌀자루라는 일상의 재료를 이용한 천장을 제안한다. 그것들이 만들어 내는 인장력만으로 천장을 띄워 올린다. 짓눌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낮게 설치하겠지만 한지의 물성이 이 높이를 포근함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푸르고 흰 한지 천장이 방문자들에게 이불 속, 열기구 안, 연등 아래, 바닷물 속처럼 다양한 연상들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 이 작업은 2022년 10월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의 기획전에서 처음 실현한 설치 작업으로, SPACE B-E의 공간에 맞게 재구성한 작품이다.